

경기공유서비스로 공유시설과 서비스를 도민과 공유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자원 개방 및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경기공유서비스는 공유시설사용자를 위한 시스템(share.gg.go.kr)과 시설담당자를 위한 관리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360°VR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시설위치의 위도/경도를 지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 넓은 면적에 다양한 시설이 있을 경우 도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60°VR 파노라마 영상(팔당전망대)





360°VR 파노라마 영상(낙생대테니스장)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①공유시설 개방 확대 및 다양화, ②시스템 안정화 및 품질관리, ③참여기관의 단계적 확대 및 참여유도, ④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⑤홍보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공유시설 발굴조사 정례화를 통한 등록시설 수 확대와 서비스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스템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규 시설의 360°VR 영상 확대와 정보 신뢰성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가제도 도입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관별 대표관리자 제도 마련과 시설 운영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시·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 적용하고 시·군에서 개방 중인 다양한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22년 5월말 기준 경기도 내 23개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의 1,863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경기도민의 공공자원 이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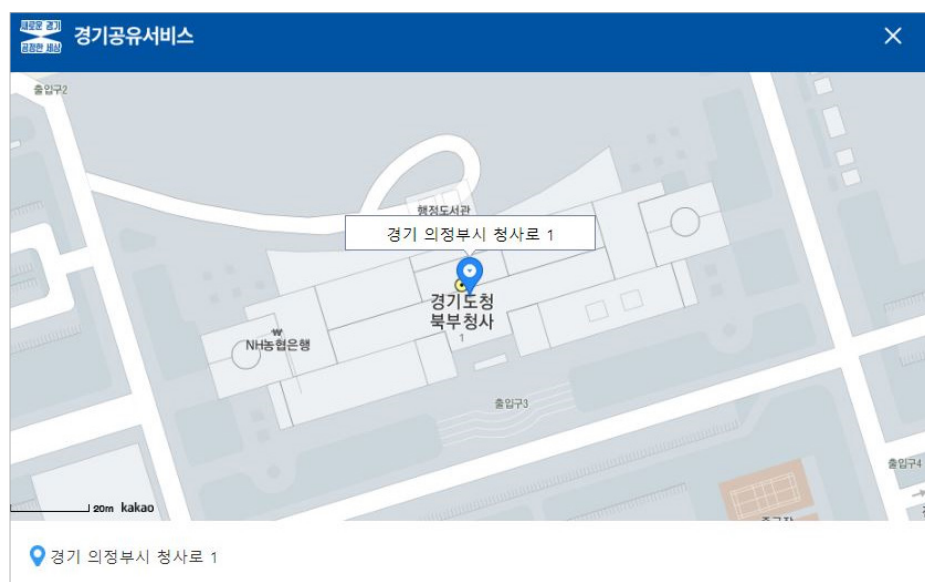
또한, 공유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경기공유서비스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시·군, 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시·군의 우수한 공공자원을 발굴 및 개방하기 위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바 있다. 회의실, 강의실, 강당 등 업무공간 중심의 시설에서 벗어나 테니스장, 축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스튜디오, 연습실, 텃밭 등 다양한 시설을 확대하였다.

두 번째, 찾아가는 회의 개최로 참여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와 행전안전부 ‘공유누리’간 시설정보 자동 연계 고도화로 경기공유서비스 또는 공유누리 사용자는 물론이고, 업무담당자의 자원 등록 및 수정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기관의 개방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시티투어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유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물품 및 캠핑장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였다.

앞으로 물품대여, 강좌·강습·체험, 캠핑장, 유희 공유재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도 제공하여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소기반 위치 표시



위도/경도 수정 기능

